

건축과 미래, 그리고 건축의 미래?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인 프랑스의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는 건축을 “빛에 비추인 볼륨들의 능숙하고, 정확하고, 장려한 유희”라 서술한 바 있다. 지중해의 태양빛에 노출된 백색의 기하체들을 연상시키는 이 문구는 참으로 시적이다. ‘세우고 쌓는다’는 기술적 말의 조합인 ‘건축(建築)’(이는 일본학자 이토 추타의 19세기 말 신조어다)이 담지 못하는 서정성이 여기에 진하게 묻어난다 하겠다.

건축을 보통 공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들 이야기 하는데, 이는 뭐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 속성을 근접하게 반영한 표현임에는 틀림없다. 즉, 건축에는 공학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이 모두 담겨있으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물과 해석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의 융합적 속성에 대한 근자의 대중적 관심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 사안이라. ‘예술(art)’의 라틴어 어원 ‘아르스(ars)’가 ‘기술’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 해당했음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 원래 ‘예술’이라는 말에 이미 ‘기

술’의 의미가 포함돼있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기술이나 예술’이라는 사전적 의미의 건축은, 보다 간결하게, ‘집짓기 술(術)’이라 요약할 만하다. 물론 여기서 ‘술’은 ‘테크네’와 ‘아르스’의 등가적 개념이다.

한편, ‘미래(未來)’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때’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날’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제의 미래는 오늘의 현재이며 내일의 과거가 되듯이, 미래는 유동적이며 끝없이 변하는 무엇이다. (비록 선형적이긴 하나) 여기에는 시간의 개념이 내포돼있는데,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이는 곧 역사와 결부된다. 아직 오지 않은 때를 어떻게 논할 것인가? 결국 역사를 반추하는 것만으로 가능할 게 다. 해 아래 새것이 없나니, 미국의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 1901~74)은 “장차 있을 것도 늘 있어왔던 것”이라 강조한다. 이런 입장은 전술했던 미래의 유동성과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이 둘은 상보적 긴장 속에서 앞날을 추동할 테다.

그렇다면 건축의 미래, 혹은 미래의 건축

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 말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갖가지의 진기하고 참신한 이미지가 추출돼 나온다. 허나 그러한 현란한 이미지가 미래 건축의 주류가 될 거라 확인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닌가 싶다. 5000년 전의 인류 주거와 지금의 주거 사이에 근본적 차이가 없듯 아마 미래의 건축도 그러할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구축적 방법이 갱신됐다고는 하지만 인간 삶의 터전, 즉 공간을 구성한다는 건축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말이다. 고로 인간과 건축의 변하지 않는 본질에 대한 탐구는 앞으로의 건축을 가늠케 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 하겠으며, 역사는 이를 위한 최고의 보고로 보인다. 내가 이 강좌의 절반을 역사에 할애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We cannot not know history.” (Philip Johnson, 1959)***

김현섭
공과대 교수
건축학과

